

# 201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언어 영역 •

### 정답

1	④	2	①	3	②	4	⑤	5	⑤
6	⑤	7	①	8	②	9	④	10	③
11	④	12	⑤	13	①	14	⑤	15	③
16	⑤	17	①	18	②	19	③	20	②
21	②	22	③	23	④	24	②	25	③
26	④	27	④	28	④	29	④	30	③
31	⑤	32	③	33	①	34	④	35	①
36	③	37	⑤	38	①	39	①	40	⑤
41	②	42	①	43	③	44	④	45	②
46	⑤	47	③	48	⑤	49	④	50	②

### 해설

[1] 이제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휴대 전화기와 전자계산기의 숫자 배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숫자를 0, 1, 2, 3, 4.....의 순서로 배치한 전자계산기와 달리 휴대 전화기의 숫자판에서 0은 9 다음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 사용해 왔던 다이얼식 전화기에서 0을 9 다음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이얼식 전화기의 경우 기계적인 이유로 인해 0을 9 다음에 둘 수밖에 없었지만 휴대 전화기의 경우 그렇게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 0을 9 다음에 붙인 것입니다. 쿼티(qwerty)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쿼티 경제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로 쓰는 영어 자판을 가리키는 말인 쿼티 자판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쿼티 자판은 1868년 크리스토퍼 쇼스라는 미국인이 창안한 것으로 이후 영문 자판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쿼티 자판보다 훨씬 편리한 방식이 선을 보였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쿼티 자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설명하는 것이 쿼티 경제학입니다.

1. [출제의도] 강연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들려 준 강연에서는 휴대 전화기의 숫자 배열이 전자계산기의 숫자 배열과 다르다는 사실을 쿼티 경제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강연자는 휴대 전화기의 0을 9 뒤에 붙일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방식, 즉 다이얼식 전화기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한 후, 이 현상을 쿼티 경제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강연자는 영문 자판의 표준이 된 쿼티 자판을 쓰던 사람들이 쿼티 자판보다 훨씬 편리한 방식이 선을 보였는데도 쿼티 자판, 즉 예전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태도를 설명하는 것이 쿼티 경제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는 다이얼식 전화기의 숫자 배열 방식이나 쿼티 자판과 같은 예전의 방식, 즉 익숙해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음은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로켓이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자세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의 자세를 제어하는 방법으로는 타면 제어, 제트날개 제어, 부(副)엔진 제어, 가스제트 제어 등이 있습니다. 그림 자료를 보면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면 제어'부터 볼까요? '타면 제어'라는 것은 로켓 아랫부분에 달린 날개의 일부를 위로 올리

거나 내려서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로켓의 자세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로켓의 추진력의 근원인 분사 가스가 나오는 노즐 후방을 보면 분사 가스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날개 같은 것이 보이시죠? 이처럼 노즐 후방에 타원형 날개를 배치하여 분출 가스의 방향을 바꾸어 로켓의 자세를 제어하는 방식을 '제트날개 제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은 '부엔진 제어'에 해당합니다. 주(主) 엔진과는 별도의 작은 분사 장치들을 노즐 주변에 배치하고 이 분사 장치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로켓의 자세를 제어합니다. 노즐 양쪽 옆에 분사 장치를 설치한다고 해서 '사이드 제트'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그림은 '가스제트 제어'라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은 로켓의 아래쪽 둘레에 가스 분사 장치를 몇 개 설치하고 상황에 따라 가스를 분사하여 그 반동을 이용하여 로켓의 자세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2. [출제의도] 강의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의에서는 로켓이 자세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①은 이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은 방식이다.

[오답풀이] ②는 '제트날개 제어', ③은 '부엔진 제어', ④는 '타면 제어', ⑤는 '가스제트 제어' 방식에 해당한다.

[3] 다음은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딸 : 아빠, 이번 연휴에는 남도 쪽으로 가족 여행을 하면 어떨까요?  
 아빠 : 남도에 가고 싶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지?  
 딸 : 얼마 전에 소설가 박경리의 작품인 '토지'를 읽어봤는데 그 배경이 된 곳에 가 보고 싶거든요.  
 아빠 : 그래, 그것도 괜찮을 것 같구나. '구운몽'을 쓴 김만중이 유배되어 간 곳도 그리 멀지 않으니 까 간 김에 김만중이 거처했던 곳도 돌아보면 되겠네.  
 딸 : 아, 그리고 보니 그 인근 지역에 철새들이 많이 찾아 왔다는 뉴스를 텔레비전에서 보았어요. 그곳이 희귀 조류가 많은 갈대밭이 있는 지역이라고도 하던데요? 그 갈대밭에 가서 철새들의 군무를 카메라에 담아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빠 : 그래. 그곳에서 멋진 풍경 사진을 찍자. 그러면 차밭에도 들렀다가 와야겠네. 드넓게 펼쳐진 연초록색 차밭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근사할 거야.  
 딸 : 아빠, 가 볼 만한 박물관은 없나요? 지난번에 공룡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정말 좋았는데요. 우리나라에 서식했던 공룡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아빠 : 그래? 아마 누에 박물관이 그쪽에 있을 거야. 누에 박물관에 들어서 명주실로 비단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딸 : 그렇겠네요. 이번 여행, 정말 기대가 되는 걸요.

3.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룡 박물관'은 이번 여행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의 방문지이다. '공룡 박물관'은 다만 이번 여행의 구체적 방문지를 정하는 데 참고가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의 가족 여행 후 기록될 수 없는 내용이다.

[4~5] 다음은 회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이번에는 농구장 개선에 관한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농구장을 개선해 달라는 학생들의 건의가 많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바지 회사가 농구장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구장 시설을 개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자 :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농구장 바닥은 군데군데 패이고 울타리도 망가져 운동하는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실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을 써 왔지만, 학생 복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안을 수용하면 학교 예산 부담도 덜고 농구장 시설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 자 : 농구장에 특정 회사의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학생들을 잠재적 소비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업의 상업적 광고가 학교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위원님들의 의견이 엇갈리는군요. 청바지 회사의 지원을 받으면 예산 부담 없이 농구장 시설을 개선할 수 있으니 수용하자는 의견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과 예산 문제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자 :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체의 지원을 받는 것에는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도서관을 개선할 때의 일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는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학교 도서관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였고, 학생들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당시 학교는 그 기업의 로고 이외에는 어떤 광고물도 부착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기업 측도 이를 수용했었죠. 이번에도 그 경우처럼 최소한의 광고만 부착한다는 조건으로 제안을 수용하면 어떨까요?

남 자 : 그때 기업이 도서관에 부착했던 로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껏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기업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학교의 교실 환경이 이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올해에는 교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중 일부를 학생 복지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하면 어떨까요?

4. [출제의도] 회의 과정을 듣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남자'의 마지막 의견은 '여자'가 제시한 대안에 동의할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여자'가 제시한 대안에 거부 의사를 다시 밝히면서 학교 예산으로 농구장을 개선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의견은 '여자'의 의견과 같지 않으며 또한 '남자'가 절충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④ '여자'는 과거 학교 도서관을 개선했던 사례를 들며 이를 근거로 하여 이번 제안에 대해 조건을 걸어 회사 측에 요구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두 사람의 말하기의 내용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남자'의 첫 의견에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업의 상업적 광고가 학교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자'의 두 번째 의견에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체의 지원을 받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의견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와 같은 외부의 지

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종합하여 적절한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1]은 [자료 1]을 통해 사회적 차별의 문제점을 다양한 사회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2]는 [자료 2]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인 공존에 의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 1]과 [학생 2]의 생각을 포괄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는 사회 구성 요소들이 차별 없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공존할 때 사회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7. [출제의도] 특정 조건에 따라 글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교실 창턱에 걸터앉아 노는 친구는 스티트맨과 같습니다.’라는 구절은, 교실 창턱에 걸터앉아 노는 데서 비롯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담은 내용을 ‘스티트맨’에 대한 비유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또한 ‘교실 창턱은 걸터앉아서 놀아도 될 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라는 구절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수집한 자료를 글쓰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1은 청소년들이 비속어나 은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를 보여 주는 자료이며, (다)는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언어 사용이 확산되는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 두 자료로부터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언어 사용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가 무엇 인지는 파악할 수 없다.

**9. [출제의도]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 ‘이웃 가족들과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식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은 글 전체의 주제인 ‘가족 내 갈등 심화와 해소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이를 글의 일관성을 살려 주제에 맞게 ‘가족 내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식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수정해야 한다. 답지에서 제시된 ‘가족주의를 지향하는 전통문화 회복 운동 전개’는 글의 주제와 관련 없다.

**[오답풀이]** ⑤ ㉔은 결론 부분으로 글 전체에 대한 요약 정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족 구성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사회적 차원의 원인들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답지에 진술하였듯이 ‘가족 내 갈등 해소를 위한 가족 차원과 사회 차원의 노력 촉구’로 수정해야 한다.

**10.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③의 ‘매겼다’는 <보기>에 제시된 ‘ㄴ. 일정한 숫자나 표식을 적어 넣다.’의 의미가 아니라 ‘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값이나 등수 따위를 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이다.

**11. [출제의도] 고쳐 쓰기가 적절하게 되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꾸게 되면 문단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오히려 해치게 된다. 따라서 위치를 바꾸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흐름상 과테말라의 다양한 풍습은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② ‘덕분’은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이라는 의미로 ‘덕분에 좋은 구경했습니다.’ 등의 용례로 사용된다. 글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때문에’, ‘탓에’ 등으로 고칠 수 있다. ③ ‘잇고’ 앞에 필요한 문장성분인 목적어 ‘걱정을’이

생략되어 있다. ⑤ ‘그리고’의 앞뒤가 의미상 대조적 이므로 ‘하지만’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12. [출제의도] 선어말 어미에 대한 탐구학습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에서는 ‘-이었-’과 그것의 준말인 ‘-였-’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둘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ㄱ의 ‘-였-’은 ‘하다’나 ‘-하다’가 붙는 동사 어간 뒤에 붙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ㄴ의 ‘-였-’은 ‘조이었다’의 ‘-이었-’이 줄어든 말이다. ㄷ의 ‘-였-’은 ‘먹이었다’의 ‘-이었-’이 줄어든 말이다. 이때 ㄴ의 ‘-이-’와 달리, ㄷ의 ‘-이-’는 사동 접미사이다. ㄹ에서 ‘-았-’은 양성 모음 뒤에, ‘-었-’은 음성 모음 뒤에 사용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ㄴ은 체언과 서술격 조사로 된 서술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경우이다. 이때 체언의 마지막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었-’의 준말이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었-’과 그것의 준말인 ‘-였-’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13~16] (현대시) (가) 김기림, ‘추억(追憶)’ / (나) 나희덕, ‘재로 지어진 옷’ / (다) 박목월, ‘상하(上下)’**

**13. [출제의도] 작품들의 시상 전개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제1연과 제2연에서는 꿈 많고 지칠 줄 모르던 과거의 모습을, 제3연과 제4연에서는 과거의 모습을 상실한 현재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는 ‘무거움’과 ‘가벼움’, ‘고요함’과 ‘격렬함’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나)에는 심상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는 시(詩)를 쓰는 공간인 ‘상층(上層)’과 생활의 공간인 ‘아랫층’의 대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다)에는 공간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4. [출제의도] 작품들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작품들을 비교·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나)와 (다) 모두 현실적 어려움과 대면하며 시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나)에 드러난 어려움은 시 창작자로서의 고통에 해당하고, (다)에는 시 창작자로서의 고통과 생활인으로서의 고통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참고할 때, (나)의 ‘저 사람’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러 올리’는 모습은 시 창작자로서의 고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에서 ‘상층’은 시 창작의 공간을 의미하고 ‘공기가 희박하다’는 것은 시 창작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기가 희박했’던 ‘상층’으로 올라감을 의미하는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는 것 역시 시 창작자의 고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과 ② (다)에서 ‘아랫층’은 생활인으로서의 공간이다. 따라서 화자가 ‘물을 마시려 내려가’는 모습이나 ‘지상에 하강’하는 모습은 생활인으로서의 고통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나)의 ‘흰 나비’의 ‘고요한 날갯짓’이나 ‘그가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 자국을 남기는’ 것은 시 창작과 관련된다.

**15.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1연과 제2연은 화자가 회상하고 있는 유년 시절의 추억에 해당하고, 제3연과 제4연은 현재적 삶에 대한 성찰에 해당한다. 제3연의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게 된 것은 현재의 모습이 유년 시절과는 달라졌음을 표현한 것이므로, 현재의 모습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시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때문이

라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유년 시절에 해당하는 1, 2연과 현재에 해당하는 3, 4연에서 ‘언덕’이라는 동일한 배경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을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반복되고 있는 공간인 ‘언덕’은 과거로 회귀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현재의 시간을 ‘노을’에 대응시켜 표현하고 유년 시절을 ‘아침’으로 표현한 것은 아침에서 해질녘으로, 다시 해질녘에서 아침으로 시간이 순환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인생에 대한 신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출제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는 ‘꿈 많은 소년’이었던 화자의 정서를 ‘머-르리 수평선이 층계처럼 낮’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⑥는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고’,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는 시적 상황을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라는 감각적 심상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㉔에서 ‘비를 맞으며’와 ‘비를 맞지 않으며’는 서로 모순된 진술로, 이러한 모순된 진술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시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㉔를 원래 어순에 맞게 고치면 ‘그는 흰 재로 지어진 옷 한 벌 남몰래 가졌을까’이다. 시인은 ㉔에서 ‘흰 재로 지어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어순을 도치하여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㉔에서 ‘발바닥’은 의인화된 대상은 아니므로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7~19] (사회) 김달중 편저, ‘외교 정책의 이론과 이해’**

**17. [출제의도]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국가 간의 통상이나 외교 협상에 대한 퍼트남의 양면 게임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인 윈셋의 의미를 설명하고, 윈셋의 크기를 조절하는 전략으로 자국과 상대국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면 게임 이론의 핵심 개념을 설명한 후, 관련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 답이 된다.

**18.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국내 집단에 공개적인 약속을 하거나 협상안을 정치 쟁점화하여 여론의 흐름을 강경한 쪽으로 유도하면 자국의 윈셋을 축소시킬 수 있고, 협상 결과에 따른 이득을 재분배하거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것이라는 식으로 문제의 성격을 전환하면 윈셋을 확대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상대국이 선호하는 이슈와 자국이 원하는 이슈를 연계하거나 정책 결정자가 상대국 내 집단에 직접 호소하여 윈셋을 확대하는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과 상대국의 협상 전략을 비교하여 분석한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국의 협상자가 최후 협상안을 18해리로 변경하면 B국의 윈셋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된다.

**[오답풀이]** A국이 제시한 16해리부터 B국의 해안까지가 A국의 윈셋이 되고, B국은 협상안으로 제시한 17해리부터 A국의 해안까지가 B국의 윈셋이 된다. 따라서 두 국가의 윈셋이 겹치는 부분은 3해리가 되고, 이것은 두 국가의 협상이 가능한 수역이 된다. 또 A국이 협상안을 18해리까지로 제시하더라도 윈셋이 겹치는 부분이 1해리가 있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양국의 국내 집단인 어민들의 향의가 있으면 양국 협상자들의 재량권은 축소된다.

**[20~23] (예술) 진중권, ‘러시아 성화’**

20.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러시아 성화의 표현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러시아 성화에서 인물들은 상징적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또한 러시아 성화는 일점원근법에서와 달리 고정되지 않은 시점을 통해 사물의 모습을 표현한다. 러시아 성화는 이러한 표현 기법을 통해 세속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성스러운 신의 세계를 표현하려 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21. [출제의도] 개념을 이해하고 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따르면 ⑥는 나뭇의 에피스테메를 갖고 있으며, 그 에피스테메에 뿌리를 둔 표현의 양상은 ③과 ④의 에피스테메와는 차이가 난다. <보기>에서는 에피스테메가 '진보'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④는 ⑥의 작품을 보고, '원근법이 없는 원시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려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자신들의 에피스테메로만 ⑥의 작품을 감상하려 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오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⑤ <보기>의 관점과 어긋난다. ③이 글에 따르면 사물을 표현할 때, 시점의 고정과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둘은 차이가 나므로 서로 유사한 에피스테메를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④ 4문단의 설명과 어긋난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단순히 탁자와 같은 사물과 인물들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는 것에서 시점의 공존을 확인할 수는 없다. 사물과 인물을 함께 표현하는 것은 일점원근법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탁자를 여러 시점에서 표현한 것에서 시점의 공존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서 성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원형의 탁자는 원형을 표현한 것이며, 5문단에서 당시의 감상자들은 이러한 형태가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하였다. ②, ④, ⑤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인물은 하인들보다 상징적으로 중요한 존재들이다. 2문단에서 인물들은 상징적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후광, 크기의 차이) 표현되며, 성스러운 존재를 형상화할 때는 사물에 가려진 모습(왼쪽에서 첫 번째 인물은 전신이 모두 드러남)까지 표현한다고 하였다.

23.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동사 뒤에서 '-다(가) 보니', '-다(가) 보면'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의 앞 '나타내'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구부러지는' 상태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가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④번이다.

[오답풀이] ① (동사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음을 나타내는 말. ② (동사나 형용사 '이다' 뒤에서 '-은가/는가/나 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듯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③ (동사나 형용사, '이다' 뒤에서 '-을까 봐', '-을까 봐서'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함을 나타내는 말. ⑤ (동사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

[24~27] (인문) 맥킨타이어, '덕의 상실'

24. [출제의도]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에서는 개인적 자유주의자의 도덕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맥킨타이어가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학의 주요 개념과 그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②는 잘못된 내용이다.

25.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세 번째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맥킨타이어는 활동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이 활동을 통해 실현되더라도 그 활동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의 연관성이 없을 때에는 덕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므로 선의 실현과 덕의 획득이 항상 일치한다고 진술된 ③은 잘못된 내용이다.

2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개인의 행위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개인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처럼 이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며 공동체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보기>에서 독일 대통령은 사죄라는 행위를 통해 이야기와 같은 자신의 삶을 이어갔으며, 독일인과 이스라엘 인과 상호 작용하며 독일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역사를 써 나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27.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야기 양식'의 문맥에 쓰인 '양식(樣式)'의 올바른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이다. ④는 "아무 데나 침을 뺄는 것은 양식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문맥에서 쓰인 '양식(良識)'의 사전적 의미이다.

[28~31] (현대소설) 전상국, '맥(脈)'

28. [출제의도] 인물의 특징과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소설에서 '나'는 '아버지'의 귀향길에 동행해 아버지의 입을 통해 과거의 사연을 듣게 된다.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한편, 그러한 아버지의 삶이 자신의 인생으로 '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오답풀이] 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나'의 친어머니는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자'는 아버지가 고향에 있었을 때의 부인으로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② '사십 전후가 돼 보이는 두 사람(김구장의 두 아들들)은 ~ 내게는 초면인 얼굴들이었다.'라는 구절에서 이들이 초면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완강한 팔목들이 그의 양어깨를 감싸고 있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29.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과거 (2) 다음에 한 행을 펴므로써 소설의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된다. 이는 <보기>의 현재 (3)을 가리키는데, '나'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파던 '구덩이'가 '출생 비밀의 현장'이었음을 감지하게 된다. '나'와 '아버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현재 (1)에서 '나'는 '세 사람의 남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다음 장면인 과거 (2)에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집에 끌려갔던 경험을 털어 놓는다. "그리고 예까지 끌려왔던 거다."라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 이야기는 다시 현재 (2)로 향한다. 아버지는 구덩이를 파며 '그것만 풀어주면 목 놓아 영영 울고 싶었다'로 시작되는 과거 (2)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과거 (2)에서 아버지는 자신을 대신해 죽은 '여자'의 희생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된다. 과거 (2) 다음에 한 행

이 떨어져 시간은 현재 (3)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은 각각 연속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가 맞물려 현재 (3)에서 벌어지는 아버지와 '김 구장의 두 아들들'과의 화해, '나'의 '출생 비밀의 현장'에 대한 인식 등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② 현재 (1)에서는 '행색이 ~ 보였다.', 현재 (2)에서는 '세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다.'에서 내가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버지'는 '여자'가 죽은 장소인 '구덩이'의 '돌무더기'를 걷어내고 흙을 파내는 '땀'의 노고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속죄하고 반성하게 된다. '나'의 반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1. [출제의도] 상황을 파악하여 발화의 생략된 부분을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그 얘기'에 해당하는 것은 '김 구장의 두 아들들이 '여자'의 무덤을 옮긴 것이다. '아버지'가 마을에 온다면 '여자'의 죽음의 현장에 가장 먼저 들러 직접 유골을 수습하며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무덤을 옮겼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미리 알고 있게 되면, 이러한 속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땀과 박씨'는 이러한 이야기를 '아버지'에서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덤은 이미 옮겨져 있었으므로 '아버지'가 '구덩이'를 판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괜한 행동이 되었지만, 결국 '김 구장의 두 아들들'과 화해하게 되었으므로, 의미 있는 행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36] (갈래 복합) (가) 박은, '우중(雨中)에 택지(擇之)를 생각하며' / (나) 안조원, '만연사' / (다) 박지원, '기린협으로 들어가는 백영숙에게 주는 서'

32.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와 (다)는 과거의 일을 회상함으로써 화자가 접하는 상황에 대한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지난해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림으로써 현재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정서를, (다)의 글쓴이는 '영숙'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기억함으로써 현재 '영숙'이 취하는 행동에 대한 글쓴이의 착잡한 심회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33. [출제의도] 시구가 시 전체에서 갖는 기능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와 [B]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A]에서는 국화에 찬비가 내리는 상황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과 더불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고, [B]에서는 나무와 가지마다 핀 꽃을 제시하여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과거와 비교하며 인식할 연상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A]에서는 '찬비'와 '국화'가, [B]에서는 '잎'과 '꽃'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34. [출제의도] 새로운 자료를 참고하여 작품을 다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흰 머리 새롭구나'는 시를 쓰는 행위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작가는 강직하고 울긋은 성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비애를 담은 시를 많이 썼다. 여기에서 인생의 비애가 담긴 시를 쓰는 행위는 자신의 삶으로 괴로워하는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그렇게 괴로워한 결과 자신이 육신적으로 노쇠해졌음을 새삼 깨닫는다는 의도로 '흰 머리 새롭구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흰 머리 새롭구나'는 작가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괴로워한 결과이므로 ④에서처럼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것에 연결한 것은 무리가 있다.

35. [출제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눈 씻고’는 화자가 자신의 주변을 자세히 보기 위해 눈을 비비는 행위이므로, ‘봄 풍경을 본 후 눈물짓는 모습’으로 연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화자는 봄이 되어 봄바람 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눈 씻고’를 부정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심리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영숙’이 ‘기린협’으로 떠난 것은 ‘영숙’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다)의 첫 문단에서 ‘영숙’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벼슬길이 막혔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영숙’이 ‘기린협’으로 떠난 것은 벼슬길이 막힌 데 따른 곤궁한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영숙’이 ‘기린협’에 대해 ‘강한 애착’을 지니고 있었다고 파악하는 것은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37~39] (기술) 크리스 해리슨 외, ‘스킨풋 : 입력장치로서의 신체에 대한 접근’

37. [출제의도] 핵심 화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스킨풋을 사용하기 위해 피부 표면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진동의 일부는 공기 중으로 소리가 되어 퍼져나가기 때문에 처음 눌렀을 때 진동 에너지의 양과 센서를 반응시키는 진동 에너지의 양은 동일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여 주어진 시각 자료에 대응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횡파와 종파의 특성을 관찰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횡파가 종파보다 진폭이 큰 진동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같은 조건에서는 종파가 횡파보다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③ 횡파는 누르는 속도에 비례해서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발생시켜서 더 잘 전달된다. ④ 횡파는 누르는 피부의 부위가 부드러울수록 진동의 진폭이 커져서 더 잘 전달된다. ⑤ 횡파는 누르는 부위의 살이 두꺼울수록 더 잘 전달된다.

39.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핵심 원리를 다른 비슷한 원리와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터치스크린에 대한 설명이다. 터치스크린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신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스킨풋에서 진동이라고 할 수 있다.

[40~43] (고전소설) 작자미상, ‘윤지경전’

40. [출제의도]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경은 최씨의 장례 후에 그 비통함을 이기지 못해 최씨의 묘라도 자신의 선산에 두기를 최공에게 부탁한다. 그러나 최공은 정황을 들어 지경에게 그러한 뜻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지경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옹주로 인해 최씨가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다. ② 최공이 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한 사람은 박씨가 아니라 윤공이다. ③ 최씨의 장례가 끝난 후 임금이 최공을 부른 이유는 최공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④ 윤공은 최씨의 장례와 관련된 상황을 지경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다.

41. [출제의도] 인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말하기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⑥는 최공 집의 하인들이 최공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지경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인용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것으로 최공의 말을 하인이 지경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인이 ⑥를 통해 최공에게 들은 말을 지경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지 이를 통해 지경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2.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위 글의 ‘지경’은 부인 ‘최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보기>의 ‘도미’는 부인의 정절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지경’의 애정과 ‘도미’의 믿음은 모두 인물이 시련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경’이 부인의 정절을 지키려다가 시련을 당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최공’은 임금의 전교를 받고 ‘지경’과 ‘최씨’를 이별하게 하려는 계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보기>의 ‘신하’는 임금의 명을 따른 것일 뿐이다.

⑤ <보기>의 ‘개루왕’은 ‘도미’와 ‘아내’를 이별시키는 계책을 자신이 직접 세우고 또한 이별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상(上)’은 ‘개루왕’과 같은 계책을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았다.

43.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지경과 박씨가 서로 마주대할 일이 없을 정도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매우 나쁜 관계로 ‘견원지간(犬猿之間)’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막역지간(莫逆之間) : 허물이 없는 아주 친한 사이. ② 문경지교(刎頸之交) :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④ 수어지교(水魚之交) :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 ⑤ 관포지교(管鮑之交) : 아주 친한 친구 사이.

[44~46] (언어) 송철의, ‘어근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44.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양상을 정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파생어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어근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파생어의 의미 도출 원리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파생어의 의미가 어근과 접사의 의미의 합으로 예측될 때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하여 합성성의 원리 준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다섯째 문단에서는 어근의 의미가 파생어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둘째 문단이 [A]에 해당하는데, 둘째 문단에서는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한 파생어의 사례와 그러하지 아니한 파생어의 사례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합성성의 원리 준수 여부에 따른 파생어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45. [출제의도] 글에서 다른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풀이’는 ‘모르거나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밝히어 말하는 일’, ‘어떤 문제가 요구하는 결과를 얻어 내는 일(또는 그 결과)’을 의미한다. 이로 보아 ‘풀다’의 의미 중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등의 의미와 접사 ‘-이’의 의미로부터 ‘풀이’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풀이’의 의미는 ‘풀다’의 의미 중 일부와만 관련된다. ‘풀이’의 의미는 ‘풀다’의 의미 중 ‘뭉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 ‘어떤 감정이나 분노 따위를 누그러뜨리다’ 등과는 관련성이 없다.

46.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단어의 중심적(기본적) 의미는 그 단어의 사전 뜻풀이의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의하면 ‘풀다’의 중심적(기본적) 의미는 ‘뭉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풀이’에는 그러한 의미가 반영되지 않고 주변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47~50] (과학) 테니스 노블, ‘생명의 음악’

47. [출제의도] 개괄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③의 내용 ‘시스템 생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는 위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위 글에는 기존 분자 생물학의 환원주의적 접근에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시스템 생물학자인 테니스 노블의 실험 과정과 그의 주장 등이 나타나 있다.

48.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핵심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의 넷째 문단과 다섯째 문단에 노블의 실험이 소개되어 있다. 이 실험에서 세포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을 정지시켰더니 단백질 채널의 진동이 멈추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심장 근육 세포의 피드백이 심장의 박동을 발생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세포 근육의 진동이 회복되지 않는 한, ⑤에서처럼 단백질 채널만의 영향으로 세포 전압의 진동을 유발할 수 없는 것이다.

[오답풀이] ④ 다섯째 문단의 ‘단백질 채널의 진동 중에 한 개라도 세포 전압의 진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단백질 채널은 원래의 진동을 계속할 것이며, 그에 따라 세포 전압의 진동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에 해당한다.

49. [출제의도] 세부 정보들의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래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는 노블의 실험에서 심장의 근육 세포에서 단백질 채널로 향하는 피드백과 관련된다. 유전자에서 유기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벨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존재할 수 있는데, 노블은 하부 구조에서 상부 구조로 향하는 위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만이 아니라 상부 구조에서 하부 구조로 향하는 인과 관계 역시 유기체의 생명 현상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환원주의적 방식’은 위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메커니즘’은 심장 박동이라는 생명 현상에 작동하는 다양한 인과 관계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단백질 채널의 작동’은 위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와 관련된다.

50.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관점을 바탕으로 다른 사례를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유전자가 ‘생존 기계’를 조작한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환원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생명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적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노블’이라면, <보기>에 나타난 관점으로는 유기체의 생명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적할 것이다.